

12  
2024

# 재외동포의

# 창



특집 \_ 이상덕 청장, 도쿄서 재일동포와 화합의 장 마련  
정책 돋보기 \_ “재외동포 각종 증명서, 인천공항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재외국민, 국내폰 · 공관방문 없이도 비대면 신원확인 가능해진다  
이슈 & 화제 \_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 · 학계 · 시민단체와의 대화  
송년기획 \_ 2024 재외동포청 10대뉴스



# ‘귀환’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취업교육 확대 시급

## ‘일반고 특화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이 고려인 고등학생에게도 가능해야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발전재단 자문위원

지난 11월 29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캠퍼스)에서 있었던 ‘2024년 다문화 청년을 위한 방송미디어 전문과정(6개월) 수료식’은 특별했다. 19명 수료생 중에 17명이 고려인 청소년이었다. 한국폴리텍이 처음으로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를 지원자격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이사장 채예진)는 교육생모집부터 선발 과정까지 인천 폴리텍대학 측과 긴밀히 협력했다. 덕분에 대학으로서도 학생모집이 수월했고 고려인 청소년들도 성공적으로 ‘국비’(國費) 직업 훈련을 마쳤다. 한국어 수업도 병행해 한국어가 아주 서툴렀던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수료 인사’에 참석자들 모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KGN은 지난 10월 26일 아시아발전재단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펴낸 ‘함께 하는 고려인 이야기’ Истории корё сарам живущих среди нас 책을 고려인 청소년 수료생(17인)에게 선물했다. 고려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만한 고려인 이주사(1부), 고려인의 한국생활 상담사례(2부), 생활한국어(3부) 모두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살이에 필요한 내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시 온양용화고등학교에 다니는 90명의 고려인 학생도 ‘함께 하는 고려인 이야기’ 책을 선물로 받았다. 온양용화고의 한국어학급을 맡은 최은혁 교사는 고려인 학생과 상담해보니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원하는 일반고 특화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심이 많았다. 2학년 말에 신청해 3학년 3~12월 10개월 동안 제과 제빵 전문학원에서 기술을 배워 취업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려인 학생은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이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취업교육이 시급함을 인식한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은 안산에 있는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한호전)와 협약을 맺고 2025년 1~2월 8주간 고려인(청소년)을 위한 제과제빵 교육훈련을 시작한다. 공고가 나가자마자 하루 만에 20명 모집을 초과한 22명이나 지원했다. 인천 폴리텍대학의 6개월 전문과정보다는 짧으나, 한호전의 8주 제과제빵교육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학교 과정부터 고려인 학생들을 위한 진로·취업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어학급 및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전국의 고려인마을에서 고려인 청소년을 상담해온 활동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고려인 학생이, 학교 적응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국사회는 ‘뿌리 산업’ 등 전문기술 분야 인력이 아주 부족하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할 여력도 없다. 이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장차 한국사회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고려인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를 더 알려야 한다. 또, 일반고(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 특화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외국국적동포 청소년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허용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외국국적동포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준 것처럼, ‘귀환’ 고려인 청소년이 이 땅에서 뿌리를 잘 내려야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05



10



20

- 02 창을 열며 '귀환'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취업교육 확대 시급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발전재단 자문위원
- 04 특집 이상덕 청장, 도쿄서 재외동포와 화합의 장 마련
- 06 정책 돋보기 "재외동포 각종 증명서, 인천공항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재외국민, 국내폰·공관방문 없이도 비대면 신원확인 가능해진다
- 10 이슈 & 화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65→40세로 낮춰야 국익에 도움"  
한국어 교육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언론미디어와 소통 강화 필요  
"국내 동포 상이한 체류 조건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 14 송년기획 2024 재외동포청 10대뉴스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정과제 실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 18 초대석 한글로 장식한 옷 입는 뽀빠까지 한글인 "한글은 매일 먹는 '밥'과 같아요"
- 20 인터뷰 쿠바 한인 후손들 "고국에 초청해 준 재외동포청에 감사드려요"
- 23 뉴스 속으로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해외에서 한글로 글쓰기 큰 의미 있어"
- 24 OKA 뉴스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 "정부 내 산재한 동포업무 한데 모아야" 외
- 26 재외동포청 공지 해외 한상 기업서 인턴십한 국내 청년들 경험담 공모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상덕 청장, 도쿄서 재일동포와 화합의 장 마련

## 민단 주최 동포 간담회 참석해 동포청 주요 정책 방향 설명



11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간담회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1월 29일, 30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열어 재일동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둘러보는 등 동포사회와 소통했다.

이 청장은 29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서 주최하는 재일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동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고 한일 수교 60주년 계기 재일민단 사업 계획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한글교육, 동포 뉴스 등 관련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는 재외동포소통플랫폼 ‘재외동포

TV’를 신설하여 재외동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동포사회 결집을 통해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TV’ 신설,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발표 추진

특히 국내로 유입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등 국내 정착 동포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포청은 2025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SNS 등을 통해 동포 모국 기여 사례를 알리는 ‘이달의 재외동포’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모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여

이상덕(앞줄 왼쪽) 재외동포청장이 11월 30일 일본 최대 한인타운인 신오쿠보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를 한 재외동포를 매달 선정, 국내에 홍보해 우리 동포의 소중함을 재조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계기,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민단을 비롯한 재일동포 사회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관련 동포단체 의견 청취

민단은 한인회 등과 함께 소통해 여러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한일 수교 60주년을 재일동포사회의 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단은 동포들의 적극적인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캠페인도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재외선거 등록 제도를 설명하고 직접 오프라인 신청 부스를 설치해 현장 등록 신청을 실시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선거 참여는 다른 모습의 조국발전 기여”라며 재외선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 재외선거 참여 증진위해 관련 제도 개선

이 청장 역시 재외선거 등록을 통한 선거 참여를 강조하며 재외동포들의 선거 참여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덕 청장은 다음날 30일, 한인 밀집지역인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 민생현장을 방문해 우리 동포 소상공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인회 등 신청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재일본도교한국인연합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일동포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신오쿠보는 올드커머를 중심으로한 오사카의 이쿠노 한인타운과는 달리, 뉴커머 중심의 동일본 최대의 한인타운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한국인이 모여 살게 된 신오쿠보에는 1980년대부터 한국 음식점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드라마 ‘겨울 연가’ 열풍에 힘입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01년 신오쿠보역 철로에 떨어진 추객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현 씨의 희생도 한국인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각을 바꾼 계기가 됐다.

한편, 이 청장이 지난 7월 31일 부임 이후 일본을 방문한 것은 지난 8월5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제 참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이 청장은 “원폭 한국인 희생자들은 물론 일본 땅에 남아계신 동포들께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운데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임한 후 첫 방문지가 히로시마라는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재외동포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장**

# “재외동포 각종 증명서, 인천공항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동포청, 재외동포와 소통하는 창구 ‘통합민원실 분소’ 개소

해외에서 입·출국하는 재외동포가 공항에서 간편하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2일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로 이전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부터 업무를 시작한 민원실에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귀국신고 등 해외 이주 관련 각종 민원서비스와 통합민원상담(전화 및 화상) 예약 및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또 법무(국적, 동포사증, 출입국), 병무, 가족관계, 국세, 관세, 보훈,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 재외동포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행정민원에 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 정부 각 부처 민원실 있어 ‘원스톱’ 효과

특히, 새 인천분소가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에는 이름그대로 정부 각 부처의 민원통합실이 몰려 있어 재외동포들이 각종 민원업무를 보는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자동출입국 심사등록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는 연중무휴로 긴급 여권발급, 여권발급 기록증명서 발급, 여권 습득 및 분실 신고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출입국자 병역사항 확인·관리, 영주권자 입영신청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검역센터, 해양수산부 수산물 검역센터, 관세청 여행자동차 민원실,

**한결 편리해진 민원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252 251 250 249

재외동포청  
영인센터  
One-Stop  
Public Service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중앙부

공항공정당  
치안센터

국세청  
납세지원  
센터

농림축산  
동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병무청

비즈니스센터

유실물  
관리소

법무부  
출입국서비스 센터

여권민원센터

**재외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

대표전화  
**+82-2-6747-0404**

민원포털  
**WWW.G4K.GO.KR**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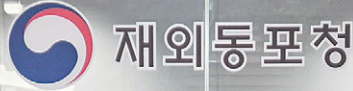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인천분소 위치를 안내하는 포스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 공항경찰단 치안센터, 국세청 납세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본청이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는 분소를 운영해왔으나 분소를 이용하려면 송도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 탓에 이용률이 떨어져 공항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천분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광화문 통합민원실과 연계해 처리해 준다는 게 재외동포청의 설명이다.

# 재외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 개소식

일시 2024. 12. 2. (월) 15:00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인천분소에서 제막식을 마치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신연정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이병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

## “향후 민원실 설치 더욱 늘릴 것”

이날 오후 진행된 개소식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신연정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가 모국을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민원실이 맡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이용률을 보가며 민원실 설치를 더 늘려 편리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만나는 첫 순간, 재외동포청이 함께 하겠다”며 “비록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부를 비롯해 각 부처 민원실이 물려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원스톱’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질적 도움드리는 정책 평가

재외동포청이 그동안 밝혀 온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로서 문턱을 낮추고 소통해서 재외동포의 손톱 및 가시를 빼드리고 실

질적인 도움을 드리며 민생과 현장을 챙기는’ 다짐을 실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축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출범이래 재외동포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며 “특히 이상덕 청장 부임 이후 재외동포청의 사업 진행 속도가 더욱 빠르게 탄력을 받고 있고, 인천분소 개소식도 그 결과”라고 말했다.

개소식 직후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은 뉴질랜드 동포 신연정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은 “재외동포청 민원실은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강조하면서 “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의 인천공항 이전은 재외동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강력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모국 방문 시 아포스티유(증명서)를 받으려고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게 돼 감사하다”고 반겼다. **창**

# 재외국민, 국내폰 · 공관방문 없이도 비대면 신원확인 가능해진다

## 동포청 · 방통위 · 과기부,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시범개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업무 협약 체결 후 기관 간 실무 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휴대전화 본

인확인이 요구돼 번거로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 후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인증서 발급을 우선으로 제공한다.

이날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5종 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 내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

아울러 내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에서 이상덕(왼쪽서 여섯 번째)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들이 시범 서비스 개시 버튼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다.



#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

2024년 11월 28일(목) 10 ~ 11:35 | 미디어룸 12층 |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인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를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이상덕(앞줄 왼쪽서 여섯 번째) 재외동포청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는 전 세계 최초로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최적이자, 최고의 혁신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포함해 앞으로도 재외 국민들이 실제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념행사에는 이상덕 동포청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이병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비스혁신국장, 김경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이선용 하나은행 부행장, 박형주 국민은행 상무, 김규하 비바리퍼블리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동포사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후 동포 권익 향상에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것이며, 시범 서비스지만 동포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존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시 국내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인증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에 방문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다”며 “이번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서,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많은 기관과 기업의 노력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가 개시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증서 발급받는 시연 행사도 진행

이 자리에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동포가 인증서를 발급받는 시연 행사도 진행됐다.

미국 덴버에서 줌 영상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재미동포 B씨는 “주민등록등본 하나 때문에 2천km나 떨어진 LA 공관까지 갔다 와야 해 부담이 컸는데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너무 홀가분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

# “국내 동포 문제 새로운 어젠다와 패러다임 위한 첫 학술포럼”

## 이상덕 청장 “국내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2024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전 재외한인학회 회장),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등 학계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재외동포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만을 정책 대상으로 보았으나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동포들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새로운 어젠다와 패러다임을 위한 첫 학술포럼이라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였다.

포럼에서는 학계와 정부 부처 관계자 교육계 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와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제1 세션에서는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이 ‘국내 동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또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하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가장 크

다는 최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 세션에서는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가 발표자로, 이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사, 송석원 경희대 교수, 정영순 대한 고려인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제3세션은 ‘국내 동포 정착을 위한 정책 대화’라는 주제로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전 재외한인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각계 전문가와 재외동포단체장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환영사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초가 과거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국내 동포도 대상이 되었다”면서 “그간 국내 거주하는 이유로 재외동포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그분들을 위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오늘 행사는 그러한 노력의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며 “내년부터는 국내 동포 정착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

#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65→40세로 낮춰야 국익에 도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재외동포 비자 체계 통합해야”

**제1** 세션에서는 객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과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법무부에서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과 강성진 국적과 사무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구센터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원 교수, 이양복 고려대 로스쿨 특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객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 동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국내 체류 동포들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른 불안정한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이들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및 취업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불법취업 및 국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객 소장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으로 재외동포를 비전문 분야 인력 공급 풀로 활용하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재외동포(H2, F4) 비자 체계를 일원화해 비전문 분야 취업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체류 동포 규모가 현재보다 50만 명 정도 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거주 재외동포자 87만 2천380명의 체류자격별 분포를 보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 보유자 수는 55만 6천700여 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단기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 수는 9만 6천790명으로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객 소장은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그들을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 제1 세션에서 객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 등이 가장 크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박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 생활에 따른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유발효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조세부담, 복지혜택과 건강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 사회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고소득의 고령자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관광이나 투자를 위해 장기간 체류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의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의 사회적 수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복수국적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적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

# 한국어 교육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언론미디어와 소통 강화 필요

동포 밀집 거주지역 이미지 개선과 법·제도·정책 개선 지속 노력해야

**제2** 세션은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 이라는 주제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가 발표했으며 이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사, 송석원 경희대학교수,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용필 대표는 발표에서 "국내 동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내 체류외국인 중 동포 인구 비중이 33%로 높지만 '모국에 와서 정체성 고민' 하는 동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동포가 대외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전파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국내 동포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시대에 인구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동포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들은 대체로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는 곳인데 동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국내 중국 동포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해소방안 찾기와 생성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내 체류하는 중국 동포 인구 증가에 따라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한국인과 융화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이주를 해버리면서 분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와 '반중정서'가 결합한 것도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했다. 이와 함께 중국동포 집거지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면서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의 온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부동산 구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를 받는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역차별'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국가 출신에게 과도한 '참정권'을 부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도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 동포들의 경우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제2 세션에서 패널로 참여한 이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사가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영화, 대중매체,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생성된 부정적 인식을 언론미디어가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어떻게 하면 부정적 이미지의 재생산을 단절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있어 언론미디어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어떻게 하면 국내 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인식 확산을 꾀할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김 대표는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산방안으로 첫째,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기에 이중 언어 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둘째, '언론미디어와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혐오예방 및 이미지 향상 활동 홍보역량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언론미디어가 내국인 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동포 집거지 이미지 개선 노력'을 들었다.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 지역민과 상호이해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정책 개선 지속 노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동포 권익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태 연구조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유관 부서 재외동포 인원 창구 확대 및 개설팀, 동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 “국내 동포 상이한 체류 조건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최상구 KIN 대표 “재외국민의 불평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 절실”

**제3** 세션에서는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송금주 인천광역시 디아스포라유산과장이 ‘재외동포를 위한 소통·교류 공간 재외동포웰컴센터’, 주상현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장이 ‘고려인 안정적 정착 및 사회 참여 지원’,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가 ‘국내 동포 정책을 위한 정책 대화’, 임미은 안산 선일중학교 교사가 ‘러시아권 이주배경 학생의 현황과 정책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는 발표에서 무국적 동포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무국적 동포는 식민 지배의 결과인 일본 조선적 동포, 사할린 동포, 구소련해체과정에서 형성된 러시아, CIS지역 동포, 해외 입양 동포 중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동포,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북한이탈 주민법상 대상 아님)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국적 동포는 거주국에서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모국으로의 귀환 보장과 국내 법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상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과 법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국민(영주자격 보유) 중 국외 출생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한국 국민이지만 국내체류 시 외국인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의무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배제, 국민임대주택 신청 불가, 특정 대출 이용 불가 및 은행 대출 시 이자율 내국인과 다른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아 지원금은 현재 위험판결 받은 상태이고, 영주귀국신고를 하고 영주자격 포기해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주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동포들도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특히 동포차별 해소와 공동체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의 3백만 동포들을 제대로 품지 못한 출신국에 따른 차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재외동포법 제정 자체가 동포를 선택적으로 대우하



제3 세션에서 임미은 안산 선일중학교 교사가 ‘러시아권 이주배경 학생의 현황과 정책 지원 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는 차별적인 정책이다. 국내체류 동포도 노동력의 수요공급,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지배, 분단, 한국전쟁과 냉전의 아픔을 한반도와 함께 겪어야 했던 동포들에게 일제가 행한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한 피해구제와 원상회복은 국가의 책무이며, 모국과 교류가 끊어져 공동체로 품지 못했던 동포들의 귀환과 자유왕래의 권리실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포사회의 모국 기여에 대한 응답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외동포들은 험한 직종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특히 조선족 동포들의 기여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포들은 한국인을 같은 동포라 생각하는 반면 한국인은 동포들을 외국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 스스로가 동포라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대표는 결론적으로 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은 재외국민 중심에서 벗어나 외국국적 동포와 무국적 동포까지 포함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정책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동포들의 상이한 체류 조건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재외동포청과 동포사회,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현장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정과제 실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로서 역할에 심혈

“

2024년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을 담아 출범시킨 재외동포청은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재외동포청이 그동안 밝혀 온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로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의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며 민생과 현장을 챙긴 사례도 쏟아졌다.

특히 7월 31일 이상덕 제2대 재외동포청장 취임 이후 재외동포청의 사업 진행 속도는 더욱 빠르게 탄력을 받아 추진됐다. 출범 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은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을 발급받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재외국민들이 국내 폰과 공관방문 없이도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케 함으로써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를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비롯해 제25차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재외동포의창’ 2024년 송년호에 올 한해 재외동포청의 10대 뉴스를 엄선해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

## 1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역대 최대 규모 수출계약 성과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란 슬로건으로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전북대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6억3천만 달러(약 8천683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내며 폐막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주최로 전주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 경제인과의 국내 기업인 등 3천 500여명이 참가했고, 대회 기업전시관에는 사흘간 1만4천여명이 방문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흘간 총 2만여건, 금액으로는 6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과거 대회와 달리 전북의 전통문화를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등 새로운 시도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 2 제25차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성료

‘제25차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1~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회식에는 50개국 한인회장과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등 350여 명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국내 주요 인사를 포함해 총 4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자랑스런 우리동포, 함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은 2일 신규프로그램 ‘나의 조국, My Korea’에서 전문가 강연과 토크콘서트와 ‘정부와의 대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발제자로 나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특강을 청취했다. 한인회장들은 7개항의 결의문 채택에 앞서 10개 지역으로 나뉜 지역별 현안토론을 진행했다.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한덕수 총리,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3 이상덕 제2대 재외동포청장 취임



이상덕 제2대 재외동포청장이 7월 31일 취임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및 국민과의 공감을 토대로 늘 개방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출범시킨 재외동포청 수장으로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포사회가 대한민국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해외 역량으로 성장한 것을 잘 반영해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 취임 이후 재외동포청의 사업 진행 속도는 더욱 빠르게 탄력을 받아 추진됐다.

## 4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동포와의 대화 개최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천 연수구 본청 4층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청장은 ‘재문청답’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자리를 마련해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국내 인식 개선 기반 조성, 취약 동포 보듬기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지난 5월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인 정태식(91) 씨가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씨는 자신이 지은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렀다. 권경석 전국가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등 재외동포들은 민생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동포청에 다양한 제안을 전달했다.



# 5

##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상황



재외동포청은 1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처음으로 국내 동포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3개의 세션에 26명의 연사와 패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펼쳤다. 일반인도 현장 참여했다. 또 재외동포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모든 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제1세션에서는 '국내 동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 제3 세션은 '국내 동포 정착을 위한 정책 대화'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에 대해 자유 토론을 펼쳤다.

# 6

## 역대 최대 2천명 동포 차세대 모국 방문 연수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 이해를 통해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2024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7월 15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총 8회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으로 실시했으며, 6차례의 하계(7월~8월) 연수에는 75개국 1천800여명의 청소년, 대학생이 참여했다. 또 두차례에 걸쳐 동계 연수에서는 각 100명 씩 200명의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연수를 가졌다. 동포청은 제1차 재외동포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확대 원년으로 삼아, 올해 2천명 초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6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7

## 46개국 한글학교 교사 232명 고국연수



재외동포청은 7월 22일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막식을 갖고 27일까지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6일 동안 열린 연수에는 전 세계 46개국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23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에 앞장서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고국을 찾아 한국어 교수법을 배우고 한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7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 사전 연수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역사 교수법을 집중적으로 배웠고, 연수에서는 실습 등 교수법 고도화를 학습했다. 또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차세대 동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 8 사할린동포 261명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할린 동포 60명이 5월 11일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사할린 동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항공편이 끊어지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길을 통해 동해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으로 이주했거나 태어난 동포 1세 및 2세와 동반가족이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261명을 선정했다. 4월 입국한 16명을 뺀 나머지 185명은 순차적으로 개별 입국 한다. 사할린 동포들은 서울·경기·인천·음성·부산 등 먼저 영주귀국한 1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동지를 틀었다. 1992년부터 시작한 사할린 한인의 고국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천86명이 조국의 품에 안겼고, 사할린에는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 9 제26회 재외동포문학상 선정·발표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시 부문 장혜영(아랍 에미리트)의 '모시', 단편소설 부문 조성국(미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수필·수기 부문 이명란(뉴질랜드)의 '이웃집 여자 린다'가 선정됐다. 이들 각 부문 대상 수상작과 함께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총 13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3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작품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심사는 문태준, 정호승(이상 시 부문), 구효서, 은희경(이상 단편소설 부문), 박상우, 이경재(이상 수필·수기 부문) 등 한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맡았다. 26회를 맞이한 재외동포 문학상은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써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0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전 세계의 전·현직 한인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8월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막했다. '우리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순자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총 14개국에서 96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정관계 인사 50여명도 함께했다. 올해 행사의 경우 다니엘 배 미국 오클라호마주 하원의원(29·3선), 김 에르네스트 우즈베크 자유민주당 하원 산하 청년의회 의원(27), 야닉 슈티 오스트리아 신오스트리아당 최연소 연방하원의원(29) 등 45세 이하 참가자 비율이 예년과 달리 50%를 넘어섰다. 

# 한글로 장식한 옷 입는 뽀속까지 한글인 “한글은 매일 먹는 ‘밥’ 과 같아요”

첫 사옥 마련해 12월 14일 기념행사... ‘AP 한국어’ 개설과 한국어반 확충이 목표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류 이사장은 공식 행사 때 아래 위 한글로 디자인된 정장을 입을 정도로 뽀속까지 한글인이다

**평**생을 의료인으로 살아 온 전직 의사가 미국에서 한글보급 운동에 앞장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모니카 류(77·한국명 전월화)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재단 이름만 보면 공공기관으로 오해하기 쉽다. 미국 LA에 본부를 두고 30년째 전 세계에 한글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순수민간 단체다. 지난 2011년부터 재단 이사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 이사장을 맡아 8년째 봉사하고 있는 류 이사장을 서면으로 만났다.

### 재단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어진흥재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미국 LA에 있으며, 미국 내 정규 초중고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되고, 확충되도록 활동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국 내 초중고교에는 외국어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라틴어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그 중 하나이지요.”

### 재단의 목표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궁극적 목적은 ‘AP 한국어’ 개설입니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AP)라는 교육 시스템인데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과목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좋은 점수를 따면, 대학 진학 후 과목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해주니까 그 시간을 다른 과목으로 채울 수도 있고, 조기 졸업도 가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AP 과정을 인정하지 15년이 되어가고 3년째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현재 2만 8천547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AP 한국어’ 개설에 이어 또 다른 목표는 초중고교에 한국어반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217개 정규 학교에 한국어반이 있는데요. 이를 감절로 늘려야 합니다.”

### 자체 편찬한 한국어 교재 판매 수익금으로 사옥 마련

### 최근 재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사옥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한국어진흥재단은 9개 부문의 활동을 합니다. 교사 연수, 예비교사 연수, 행정가 연수, 학생 연수 등등입니다. 많은 교사가 참석하는 큰 교사연수는 한미교육재단이

있는 LA교육원 큰 강당에서 진행하고, 작은 그룹의 연수는 재단 사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재단이 자랑스럽게 준비해 온 사업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저소득층, 비한국계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혈통이 아니라서 주말학교에 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한국어 클래스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쓰는 한국어와 차별화한 한국어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교과서 판매 수입으로 사옥 구입이 가능했어요. 미국 내 외국어 교과서는 미국외국어교육자협회(ACTFL)와 ‘캘리포니아교육청의 능숙도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 지침은 5C’s(communication=소통, culture=문화, connection=연결, comparison=비교, communities=커뮤니티)입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질적으로 뛰어난 교과서 ‘에픽 코리아(EPIC KOREAN)’은 여러 곳에서 선풍을 일으키며 채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동부, 중부, 북부, 남부와 캐나다, 한국 오산미군부대 소속 학교, 아이랜드에서도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보급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글은 나에게 매일 먹는 ‘밥’과 같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조직적으로 벌이는 사회봉사와는 멀리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봉사가 중요함을 깨달았죠. 누군가는 계획하고, 알리고, 모으는 일을 해야겠지요. 봉사의 연결고리를 따라 당도한 곳이 한국어진흥재단이었어요. 재단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확인 했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세대의 세계화에 필수적인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보급하는 재단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한글보급에 힘 쓴 공로로 지난 10월 ‘자랑스러운 경기인’에 선정됐습니다.**

“선배 이사님들이 30년 전에 시작하고, 쉼 없이 헌신한 덕분에 가능했던 한국어 보급이었습니다. 저는 늦각이로 동승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은 저에게 수여한 상이라기보다는 모든 디아스포라 경기 여성들과 경기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온 여성들



한국어진흥재단 설립 30주년을 맞아 외부 도움없이 처음으로 마련한 자체 사옥

을 응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외동포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미 했을 당시, 그러니까 반세기 전이네요. 그 때는 문화에 낯설고, 언어에 어눌해 힘들었고, 미국은 조금 패쇄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다지 가슴 아프게 기억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이므로, 양쪽 나라의 문화, 역사를 이해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글로벌 시민으로 살 수 있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청이나 모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 남성우월주의에서 탈피해야 하고, 그러려면 엄마들의 개화, 이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차세대 교육도 원활하게 되죠. 반복되는 연결 고리를 과감히 깨어야만, 엄마들의 아들이, 아버지의 딸들이 가슴을 펴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등감의 다른 한 면은 우월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에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 뒤에 열등감이 숨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환경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인 글로벌 시민이 되어 뜻 하는 일을 신나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동포청이나 모국이 밑거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류 이사장은 재외동포청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재외동포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문인으로 미주가톨릭문인협회와 재미수필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중앙일보에 건강칼럼 고정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

# 쿠바 한인 후손들 “고국에 초청해 준 재외동포청에 감사드립니다”

한-쿠바 수교 계기 독립유공자 후손 등 고국 땅 밟았다



9일 재외동포청 초청으로 고국을 방문한 쿠바 한인 후손들이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며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테레사 우에르타 긴 쿠바 바라데로 특별검찰청 검사, 노라 임 알론소, 마이올리 코레아 산체스 씨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지난 2월 이뤄진 한-쿠바 수교를 기념해 9일부터 13일까지 한인 후손 3명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임천택 지사의 손녀 노라 임 알론소(59), 바라데로 특별검찰청 검사인 테레사 우에르타 긴(59), 쿠바 한글학교 수강생인 마리올리 산체스(56) 등 3명이다.

임천택 지사는 1905년 쿠바 이주 후 대한애국단 쿠바지부를 창설하고, 대한인민회 쿠바지부 회장,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모금해 상해 임시정부에 후원 활동을 했으며, 초대 쿠바 한인회장을 지냈다.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고, 국가보훈부로부터 ‘2024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9일 입국한 이들은 13일까지 대전현충원 참배 후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대한적십자사의 협력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경복궁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견학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했다.

이상덕 청장은 “한인 후손들이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창’은 9일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한인 후손들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은 “모국에 초대해 준 재외동포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쿠바 한인 후손 3인과의 일문일답.

## 고국을 방문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노라 임 알론소** \_ “인천이 고향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고국 땅을 밟는 순간 기쁨과 함께 착잡한 감정이 북받쳤어요. 할아버지를 통해 들은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리 막상 와 보니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의 눈부신 발전에 놀랐어요.”

독립운동가 임천택 지사는 1905년 쿠바 이주 후 대한애국단 쿠바지부를 창설하고,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부 회장을 지내면서 독립자금을 모금해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했고, 초대 쿠바 한인회장을 지냈다.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으며, 국가보훈부로부터 '2024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바 있다.

노라 씨는 칼리토 가르시아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서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테레사 우에르타 긴** \_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언젠가 고국 땅을 한 번 밟고 싶다는 꿈을 가지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해서 제가 이루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게 해준 재외동포청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한국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것을 보고 느껴 쿠바로 돌아가면 잘 전해 드리겠습니다.”

테레사 우에르타 긴은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마탄자스 주 바라데로 특별검찰청 검사로 34년째 근무하고 있다.

**마이올리 코레아 산체스** \_ “고국 방문은 지난 7월 여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겨울입니다. 올 때마다 인천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국에서 나 혼자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고국 방문을 꿈에서도 그리셨던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그는 이 대목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첫 번째 방문 때 할아버지 성명을 찾는 게 숙제였는데, 이번에도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처음 멕시코로 이주하셨다가 쿠바로 이주하셨는데, 멕시코에서 살 때 화재가 나는 바람에 모든 것이 타



독립운동가 임천택 지사 손녀 노라 임 알론소 씨



테레사 우에르타 긴 씨.



마이올리 코레아 산체스 씨.

버려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들이 다 없어졌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김재성으로 추측되고 고향은 인천인 것으로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몰라요.”

마이올리 산체스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인터뷰 도중 간간히 한국말을 하기도 했다.

##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고국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노라 임 알론소** \_ “할아버지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어렵게 살았다는 이미지만 있는데 와서 보니 많이 발전돼 있어 놀랐어요. 어머니가 스페인 출신이어서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부터 한국 음식 요리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쿠바에서 한국어학교도 설립해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스페인어도 열심히 배워 함께 이주해 온 한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한인으로서는 뿌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자녀 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큰 아버지 헤로니모 임(한국명 임은조)은 쿠바 정부 산업식량부 차관과 한인회장을 지냈고, 생존해 있는 고모 마르타 임(86)은 '쿠바의 한인들'이라는 책도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펴냈어요.”

임천택 지사의 증손자로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영 임 펜잔 안토니오(28)씨는 지난 8월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테레사 우에르타 긴** \_ “할아버지가 사셨던 서울만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한국문화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후손들에게 잘 전해줄까를 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의 뿌리가 한국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겠습니다.”

**마이올리 코레아 산체스** \_ “저는 이민 4세대인데요. 증조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고모로부터 한국에 관

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주말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함께 하는 모임 문화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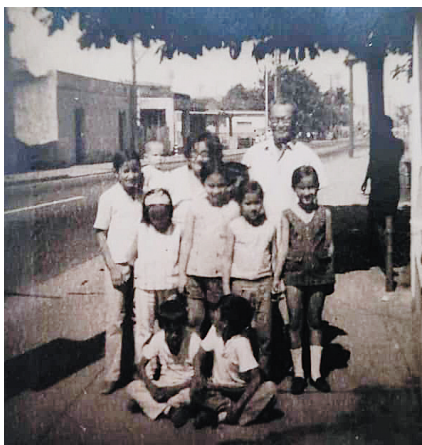
## “민간외교관으로 한국과 쿠바 잇는 가교역할과 차세대에 한국 문화 전달하는데 힘쓸 것”

### 고국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과 관련한 활동을 할 계획이 있을까요.

**노라 임 알론소** \_ “할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한인회가 유지됐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됐어요. 강제 이주 등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전과 같은 한인회는 없어지다시피 됐어요. 그렇지만,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어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국 방문을 계기로 민간외교관으로서 한국과 쿠바를 잇는 가교역할과 차세대에게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테레사 우에르타 긴** \_ “시인이자 쿠바의 국민적 영웅인 호세 마르티의 이름을 탄 ‘호세 마르티 문화협회’라는 대규모 조직이 있는데요. 그 산하에 여러 가지 소규모로 동호회나 클럽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한인 후손들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나눠 먹고, 우정을 나누는 네트워킹 문화모임이 항상 열립니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식적인 협회로 키워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마이올리 코레아 산체스** \_ “쿠바 한인들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이주한 사람들인데요. 2014년부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해 온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상설 전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곳에서 분기별로 한복, 전통 문화, 전통 악기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한글 수업이나 한국 요리 강좌를 열기도 합니다. 한인 후손들만 오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 있



1970년대 초반 무렵 독립운동가 임천택(맨 뒤줄 오른쪽 첫 번째) 지사 부부가 손주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둘째 줄 오른쪽서 두 번째가 노라 임 알론소 씨. 노라 임 알론소 제공.



지난 추석 때 쿠바 한인후손모임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 오른쪽서 두 번째가 마이올리 코레아 산체스 씨. 마이올리 코레아 산체스 제공.

는 쿠바인들도 다녀가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기도 했어요.”

### 쿠바에서 한류 바람은 어느 정도 인가요.

**노라 임 알론소** \_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류를 모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만큼 쿠바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마이올리 코레아 산체스** \_ “한국과 수교 전에도 재외동포재단(OKF)을 통해서 한국 청년들이 와서 노래와 전통 춤을 선보이기도 했었어요, 8.15 광복절 행사도 쿠바에서 가진 적도 있어요.”

### 고국과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노라 임 알론소** \_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고요. 이번 계기로 한인 후손으로서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나 먼 작은 나라 쿠바에도 1099명이나 되는 한인 후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인 후손들 초청 기회가 앞으로도 더욱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테레사 우에르타 긴** \_ “저는 마탄사스 주에 살고 있는데요. 한인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과 쿠바 간에 교류가 더 많이 이어져서 한국문화가 더욱 많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인 후손들은 11일 임천택 지사가 안장돼 있는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노라 임 알론소 씨는 “이번 고국 방문 일정에서 가장 기대 됐던 게 할아버지 묘소를 찾는 것”이었다며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할아버지 노력 덕분에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누렸다”면서 할아버지에게 감사함을 전했다고 했다. **장**

#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해외에서 한글로 글쓰기 큰 의미 있어”

## 동포청, 수상자 13명에 온·오프라인으로 시상…소설가 구효서 강연도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1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3개 부문의 대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외국에 살고 있어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단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조성국(미국) 작가는 화상을 통해 “해외에서 한글로 글을 썼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일에 관심을 갖고 즐기면서 창작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수필·수기 부문 대상을 받은 이명란(뉴질랜드) 작가는 “혼자서는 살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며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방인이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시 부문 대상을 받은 장혜영(아랍에미리트) 작가는 “문학이라는 연결고리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요르단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다는 수필·수기 부문 우수상 수상자 이지영(요르단) 작가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여행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던 중 전해진 수상 소식에 기쁘고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 후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한국 현대문학계를 대표하는 소설가 구효서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 작가는 “해가 거듭할수록 수상자들의 수준이 신춘문예에 출품하더라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구 작가는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은 타자(他者)를 잘 배양하고 키워야 한다”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문학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학교 종소리가 ‘땡땡땡’ 친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다. 그런데 실제 종소리가 땡땡땡이 아니지만 우



11일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에서 이상덕(왼쪽) 재외동포청장이 수필·수기 부문 우수상 수상자인 이지영(요르단) 작가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리는 그렇게 들린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다"면서 문학인은 언어에 속박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언어의 바다에 던져져 있다. 문인은 그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 문학상’은 서로 떨어져 있는 재외동포 모두의 삶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으며, 동포 작가들의 노고 덕분에 한국 문학의 지평이 보다 넓어지고, 우리 문화의 위상 또한 높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포문학상이 문인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재외동포 문학상'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담은 우수한 문학작품을 발굴·소개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상은 수많은 재외동포 문학인의 도전과 열정 속에서 한국 문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상자 다수는 국내 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창**

##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 “정부 내 산재한 동포업무 한데 모아야”

“컨트론타워 역할 필요”...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발표도 논의

재외동포청은 지난 2일 인천 송도 소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덕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 업무를 일원화하는데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포청을 중심으로 동포업무를 모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동포정책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취지를 살려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동포정책의 비전 제시 ▲재외국민교육법 등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의 정비 ▲동포담당 영사 재외공관 파견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교섭 및 주도권 확보 등을 주문했다.



2일 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한편, 이날 자문위는 동포청이 내년부터 추진할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포청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들을 찾아 국내외 재외동포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 동포청,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 위해 온라인 학위과정 지원

내년 1월 초까지 신청...2월 말 결과 공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글학교 교사들의 국내 사이버대학 한국어 교육 관련 학위과정 수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사업’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위와 한국어교원 자격(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3학년 편입생이 대상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송실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등이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대학별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동포청은 합격자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2월 말 결과를 공지한다. 선발된 온라인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한국어 교육론 등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게 되며, 필수과목 수강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어교원 자격(2급) 취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



사진은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참가교사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항은 재외동포청(oka.go.kr) 및 스튜디오코리아(study.korean.ne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덕 청장은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한글학교와 한글학교 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포청, 차세대 육성 위해 내년 '글로벌차세대동포위원회' 발족

12월 9일 준비 회의 개최...차세대, 입양동포 등 4개 분과 12명 재외동포 참석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동포 차세대 인재 발굴·육성과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차세대동포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동포청은 위원회 출범을 위해 9일 인천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준비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차세대 ▲입양동포 ▲모국 초청 장학생 동문 ▲재외공관 인천 등 4개 분과에 12명의 재외동포가 참석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거주국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또 차세대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했다. 회의 참가 후에는 정체성 함양을 위해 인천 소재 한국이민사박물관, 제물포구락부, 조계지 등 역사적 체험장소를 방문했다.

동포청은 '글로벌차세대동포위원회'를 전 세계 차세대동포 네트



변철환(왼쪽서 일곱 번째) 재외동포청 차장이 9일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준비 회의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워크 구축과 글로벌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공식 네트워크 및 재외동포 차세대 정책 자문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K-푸드' 해외 진출 지원 나섰다

재외동포청, 12개국 바이어와 42개 국내 식품기업 수출상담 주선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초청해 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 코엑스 푸드위크(COEX FOOD WEEK)와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12개국에서 온 20명의 식품 전문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과 국내 42개의 식품 관련 기업이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157건 1천445만 달러(약 202억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제1차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주제: K-뷰티)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K-푸드'를 주제로 우리 식품 관련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중국, 미국, 독일 등에서 활약 중인 재외동포



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내 식품 기업을 상대로 한 수출상담회에서 1천445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비즈니스 자문위원들이 수출입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은 거시경제 환경과 현지 정세를 분석하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인천분소 개소식(12월 2일)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12월 6일)
-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12월 11일)

### 12월 재외동포청장 등정

- 2일: 제3차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 2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인천분소 개소식
-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 6일: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 11일: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 19일: 제34차 재외동포 정책 실무위원회 및 오찬
- 20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위문품 전달식
- 23일: 태권도 진흥재단 업무협약

## 재외동포청 공지

### 해외 한상 기업서 인턴십한 국내 청년들 경험담 공모

수료자 누구나 참여 가능...상장과 상금 지급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해외에 있는 한상(韓商) 기업에서 인턴십을 한 국내 청년들의 경험담을 16일까지 모집한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옛 한상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에는 인턴십 수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십 국가 또는 동포 기업, 동포 커뮤니티에 대한 영상일기(vlog)를 비롯해 인턴십을 통해 이룬 성과(해외 취업 성공 사례), 인턴십을 추천하는 이유 등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험 전반을 담으면 된다.

2024년 인턴십 수료자(18기, 19기)의 경우, 한상넷(www.hansang.net)에 제출한 수기로 자동 접수된다. 추가로 영상이나 솜품을 지원하려면 별도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okaintern@gmail.com)로 수기 및 영상 등을 보내면 된다.

공모 부문은 수기, 영상, 솜품. 작품규격은 수기는 자유 양식에 2,000자 이상과 수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3장 제출(각 1MB 이상, jpg, jpeg, png 등)하면 된다. 영상은 mp4, wmv, avi 등 영상파일 형식의 10분 내외이다.(단순 개인 구두 발표 영상은 제외). 솜품은 60초 이내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이면 된다.

응모된 콘텐츠 중 적합성, 전달성, 참신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6점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과 함께 재외동포청



2024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수기·영상·솜품 공모전

**신청자격** | 국내 한상의 동포 기업 인턴십(구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수료자 누구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okaintern@gmail.com)

**주제** | 현지 생활 브이로그, 인턴십 국가, 동포 기업, 동포 커뮤니티 등 소개, 동포 기업 인턴십을 통해 이룬 성과(해외 취업 성공 사례 등), 동포 기업 인턴십을 추천하는 이유 등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 경험 전반

**제출 서류** | 작품 파일,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역권 사용 동의서, 인턴 수료증(원부파일 첨부)

**공모 부문** | 수기/영상/솜품  
\*공모된 인턴십 수료자만 18기, 19기의 경우 한상넷에 제출한 수기로 자동 접수되며, 영상·솜품 자료 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외

**결과 발표** | 12.30(일)

**문의처** | 인턴십 운영사무국  
- 전화: 032-466-3225  
- 이메일: okaintern@gmail.com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 Affairs Agency

2024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수기·영상·솜품 공모전 포스터

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장려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e메일: okaintern@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나기까지 **재외동포**도 함께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는  
**재외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에도  
**재외동포**는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